



나의 수행법

보현행원 체험기 - 박정준 (下)

청소하면서 하찮은 벌레에도 그 생명의 귀함에 감사했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서도 찬란한 삶의 모습을 찬탄했다. 그리고 지난 중간고사 기간엔 독서실에 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말도 해 보았다.



자 다 집했다. 우리들은 늘 곁에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지 못하며

요즘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타인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의 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느끼지 못하고 산다. 눈을 돌려 창밖으로 펼쳐진 모습을 보라! 어느 것 하나에도 그 아름다움이 없는 곳이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그냥 투명한 하나의 색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해 준다.

그런데 그런 녀석들이 나의 칭찬 몇 마디에 쉽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닌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엔 내 경험 상 흔치 않은 일이다. 참으로 진솔하고 단순한 칭찬 한마디가 한창 민감하고 거친 아이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천천히 보면 그 빛은 바로 우리를 무지개의 본질이다. 알 수 없는 투명함에서 영롱한 무지개가 우리 주변의 만물을 비추고 있는 것이며, 그 빛은 만물의 성품에 따라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얼

하찮은 벌레 보고도 생명의 귀함에 감사 생활에서 우리가 가야 할 부처의 길 발견

끼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부처의 길이 있다. 본래부터 밝은 본성인 부처 마음이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가려져 있으니, 그 어둠을 감사와 찬탄의 말로 거두어 내고 부처의 길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선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길을 확인해 주셨다. 나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알려주신 그 길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내 수행의 끝은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을 너머의 세계, 즉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부처가 되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마나 조화로운 우리들의 세상인가? 그 빛은 아무런 색깔과 편견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막론하고 그들 각자의 아름다움에 영혼함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런 빛을 받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그런 무지개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며 살아간다. 자신은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온 누리에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노래하며 보현행원의 길로 가면 된다. 이런 자그마한 사실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마운 줄은 보현행원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다.

연초에 끝없이 추락하던 마음이 평온해 졌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만나는 이웃 모두에게 '질렀다'란 칭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보현행원의 실천이 나의 본래 모습을 찾도록 해 준 것이다. 나의 잘난 것 못난 것 모두 받아 주시는 부처님께 일체의 나를 바치고(供養), 일심으로 보현행원을 통한 부처의 길을 가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다. 모두에게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란 불성을 깨우는 소리를 들려주자. 각자 부처의 마음으로, 커다란 축복의 생명을 찬란하게 피워가자. 그리고 그것은 그토록 장엄한 화엄의 세계일지니.(끝)

자력? 타력? ... 중요한 건 믿음

'불교수행은 자력(自力)인가 타력(他力)인가?'

불교에 갓 입문한 초심자라면, 누구나 갖는 질문이다. 알핏 보기에는 쉬운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물음이다. 특히 자력의 입장인 선수행과 타력적 성격이 짙은 염불수행을 두고 보면, 얼른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최근 간화선 수행이 대중화되고,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수행단체는 물론 학회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토학회(회장 법산 스님)의 경우, 9월 2일 '불교신앙의 자력과 타력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여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과 염불수행의 입장을 살펴보자.

자·타력 대표 수행법 '선-염불' 출발점은 조건없는 믿음 "깨달음 얻기위한 방편일뿐 완전한 자력도 타력도 없어"

#선(禪), 과연 자력인가?

'본래성불'을 강조하는 선. 화두일념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 수행은 단연 '자력'의 성격이 강하다. 자신의 청정성(淸淨性)을 믿고 사무치게 자성(自性)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원리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수행의 자력은 '믿음'에 근거한다. 즉 '믿어야 선의 세계에 들 수 있다'는 말이다.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선 수행에서는 불타의 말씀보다 조사의 말을, 경전보다 조사의 어록을, 계율보다 청규를, 불타의 수행법보다 조사의 수행법을 더 중요시 한다"며 "오히려 조사불교가 화두참구를 신앙화하고 다른 수행법보다 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염불은 정말 타력인가?

<무량수경> 대중강의를 하고 있는 호란 스님(연천 오봉사)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스님은 아예 염불은 '불력(佛力)'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해 구제하는 마음이다. 염불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수행이기 때문"이라며 "한국불교에서는 이를 '선정일치(禪淨一致)'라고 강조해 염불과 선이 같다"고 설명한다. 반면 염불수행이 타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강동균



선수행은 스스로의 깨달음이 강조되어 '자력'의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교수(동아대 철학과)는 그 전제를 '대승불교의 자리아타(自利利他)'에서 찾고 있다. 즉 중생 스스로가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정토사상이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특히 "정토사상에서 타력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의미한다"며 "중생이 중생일 수밖에 없는 면목은 <무량수경>에서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밝은 눈'은 자력, '빛'은 타력

보광 스님은 자력과 타력의 관계를 '밝은 눈'과 '빛'으로 비유한다.

스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내 눈이 밝아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눈이 밝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며 "내 눈이 자력이고, 빛은 타력이다. 때문에 자력은 타력에 비해 아주 일부분"이라고 말한다. 즉 내 눈이 밝다고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력이나 다른 중생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불교에서의 진정한 타력이라는 설명이다.

#자·타력은 방편, 성불 위한 길일뿐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불교수행에서는 완전한



염불수행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한다는 면에서 타력의 성격이 짙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자력도 타력도 있을 수 없다"며 "자·타력의 양 극단으로 나눠 인식하는 것은 수행의 '포용성'을 그르쳐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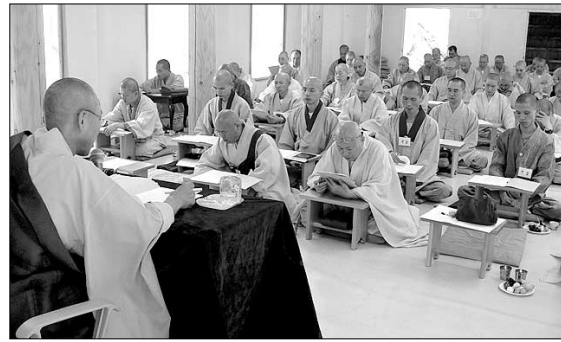
가령 자력적인 측면이 강한 선수행의 경우에도 <금강경> <능가경> 등의 경전에 의지하는 부분, 스승의 지도를 통한 화두 참구 등이 바로 타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선이든 염불이든 불교수행 그 자체는 자력적이지만, 깨달음을 얻는 적극적인 계기는 대부분 타력적"이라며 "자력과 타력의 문제는 하나의 방편으로 단지 성불을 위한 길이 다를 뿐"이라고 강조한다.

호란 스님도 마찬가지다. "선이든 염불이든 믿으면 하나"라고 말한다.

스님은 "육조 혜능 선사의 제자들이 염불수행을 하던 선도라는 대사를 보고, 육조 선사에게 '우리들은 죽도록 참선만 하는데, 저들은 염불만 하니 무슨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냐'고 묻자, 육조 혜능 선사는 '일구미타무변염(一勿彌陀無變念: 일념으로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염불하면 불로탄지도 서방(不勞)揮指到西方: 손가락 튕기는 힘도 들일 것 없이 서방정토에 태어난다)'라 말했다"며 "이는 수행자의 인연에 따라 수행법이 다르고, 수행법의 우위는 없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50여 논객들이 재연 스님의 주제 강연을 듣고 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여전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논쟁 대상이다. 8월 29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제12회 선우논강 '대념처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선우논강, 50여 논객 열띤 토론

경>과 간화선'에도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수행에 관한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재연 스님(화엄학림 학장)은 '대념처경의 심(心), 념처(念處), 법념처(法念處)와 화두 참구'란 주제 강연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선정보다 지혜를 중시하고 △각각 화두와 법을 행해 △공극에 견성과 해탈에 이르는 수행으로 부처님의 세계관을 수행 방법론에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한 '두 수행법의 다른 점'에 대해 '참구대상, 직관

과 분석, 불립문자, 인가 등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3년에 열린 제7차 선우논강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란 주제로 제기됐던 것으로 이번 논강에서는 구체적으로 간화선을 대표하는 화두와 위빠사나의 근간인 <대념처경>을 상호 비교하는 자리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철우 스님과 해강 스님은 "화두를 정해진 대상이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사마타에 가까운 수행으로 오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 경향이 있다는 지우 스님도 "위빠사나 입장을 분석으로 표현하기보다 관으로 보아야 하며, 간화선에서 불립문자는 깨달음의 세계를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지 경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안 후두마을에서 수행 중인 김열원씨는 "위빠사나 수행이 간화선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된 것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뜻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글·사진/남원=이준영 기자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굶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들깨, 흰머리를 길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동맥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페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전 합장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055)241-0374
휴대폰: 011-833-0374

※남여 행사 모집합니다.

간(肝)이

간 지방간 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정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담금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약 9가마니를 덮은 뒤 원형을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약 7가마니가 더들어 가까지 고약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